

건 의 문

教育長 님 貴下

존경하는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천시와 귀국 미요시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쌓으면서 양 시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우호관계를 깊이 이어가기 위해

2001년 5월 23일 뜻깊고 영광스러운 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천시와 귀국 미요시시와 결연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사실로 기록되어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극복하고,

이웃나라끼리의 아름답고 생산적인 우호관계를 영원히 누려 가는데 기여하면서 대망의 21세기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참으로 많은 의미와 높은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들의 교육 교류를 비롯한 상호 협조체제가 활성화된다면 사천시와 미요시시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토록 좁게는 사천시와 미요시시, 넓게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나라로서 서로 돕는 형제처럼 지내야 되겠지만 요즘 제기되고 있는 신역사 교과서 채택문제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귀국의 『신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편찬한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기술했던 교과서 문제로 온 국민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사태를 체험한 세대로서 한국이나 일본에 살아 있는 피해자와 증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것을 부정하고 편찬한 왜곡된 교과서라니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역사적인 한·일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역사는 진실 되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이 아닌 역사를 가르친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눈을 감은 자는 현재도 미래도 볼 수 없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지금 귀국에서는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본 중 『신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집필한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 태평양전쟁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 귀국 내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의 반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까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반목과 갈등의 짐을 지어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실된 역사 속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왜곡 기술된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와 불채택 운동을 온 국민 및 일본의 지식인과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미요시시에서도 왜곡 기술된 『신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집필한 교과서가 2002년 미요시시 중학교 교과서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불채택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저희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이 서명하여 보내 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사천시와 귀국 미요시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1년 7월 21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 장	이 원 식
사천시의회 부의장	차 병 탁
사천시의회 의원	강 석 순
사천시의회 의원	최 동 식
사천시의회 의원	강 득 진
사천시의회 의원	이 목 년
사천시의회 의원	최 정 경
사천시의회 의원	이 인 효
사천시의회 의원	김 민 조
사천시의회 의원	김 종 찬
사천시의회 의원	이 영 술
사천시의회 의원	강 석 춘
사천시의회 의원	김 현 철
사천시의회 의원	정 순 갑